

#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탐색 :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매개적 역할

황진홍(중앙대 석사수료) · 이주리(중앙대 교수)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참여시간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요인들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모형화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우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한 발달과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인천·경기의 초등학교 5·6학년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6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남학생은 202명 여학생은 166명이었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는 조봉환(2006)이 개발한 ‘생활 스트레스 척도’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시험·성과와 관련된 스트레스, 과제 관련 스트레스, 학습내용 스트레스, 학원 스트레스 등 4개의 하위요인과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울의 척도는 Kovas(1983)이 개발한 아동용 우울 검사 도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아동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 등 5개의 하위요인과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교육 참여시간과 학업성취는 한국청소년패널(KYPS)의 척도를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일주일동안 사교육 참여시간과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alpha$ 계수,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시간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 참여시간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아동의 일상에서 학업에 대한 비중은 매우 크며 성적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성적이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 그에 따른 사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며 이는 사교육 증가의 원인이 된다. 사교육에 대한 부담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 가정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늘게 되며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의 아동은 학업성적이 저하되고 교육에 대한 불이익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또한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빈곤아동은 학업성취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을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며 교육영역에서 빈부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